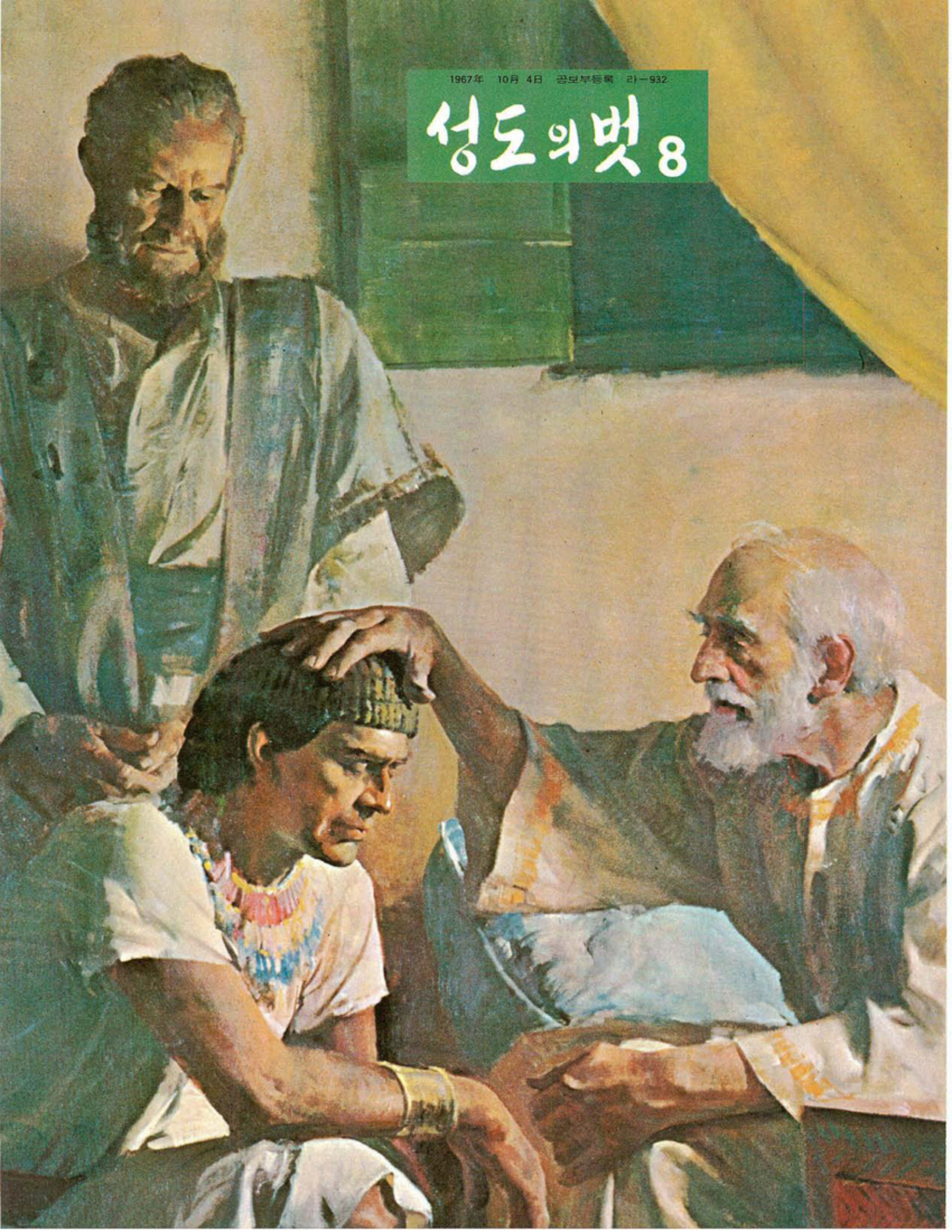


1967年 10月 4日 公報부등록 라-932

성도의 빛 8





영감의 멧세지

메리온 지. 룬니
(12사도정원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모든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영역 안에 두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형태에 관한 예언자와 우리의 간증을 여러분의 마음에 상기시키므로써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 간증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전하므로써 여러분께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증인의 간증과 그 확실성을 믿을 것이냐에 관한 태도를 여러분 스스로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같은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진리에 관한 개인적 확증을 얻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이 제시된 방법을 따르기에 충분하며 스스로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사람은 경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반 사실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보여주신 계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4권 제8호

순서

1968년 8월호

권두언 : 영생이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교회는 과연 필요한가? 하워드 더블유. 헌터.....	3
개인 특기의 보상 제임스 티. 튜크.....	5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자제력 존 에이취. 반덴빅.....	7
상호 부조회 : 어머니 이브의 훌륭한 모범 메리온 지. 룬니.....	9
맛들이고 절이고 녹녹하게 하기 플로렌스 비. 페녹.....	11
주일학교 :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밀퍼드. 씨. 커트렐.....	12
신앙에의 충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14
상 받은 클로비스 지부의 신앙 버질 엔. 코발렌코.....	15
빈 책꽂이 플로렌스 비. 페녹.....	17
청소년편 : 저의 방향은?.....	18
디네의 아들 돈 스미스.....	19
상호 향상회 : 삶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21
계보 : 누가 나의 친척인가?.....	23
선교부장단 멧세지 : 발은 흰데 부르거.....	25
우리소식.....	26

어린이 성도의 벗

가장 중요한 소년, 그림동산, 아프리카 최대의 신비, 데이비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8년 8월 1일
통권 제37호

발행인 배 일 문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이달의 표지 : 헤리 앤더슨 작
구세주의 탄생. 창세기 49장
을 참조하십시오.

영생이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드론 강을 건너 그를 로마 병정들의 손에 팔아 넘겼던 배반자의 입맞춤을 받기 얼마전 그의 영광스러운 중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 17:3)

참 의미의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열쇠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 보다도 나의 영생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영생을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즉 여러분과 세상 모두를 위하여 세상에 다른 무엇 보다도 나는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가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러한 열망에 답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 대답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서에 기록된, 매일 주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다가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친 경우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가 하시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부르짖어 묻되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진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대답하셨으니 그 내용의 뜻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요한 7:17)

이 말씀의 내용은 펴 철학적입니다. 이 간단한 표준은 인간이 마음 속에 품어야 하는 지식을 얻게 합니다. 한가지 일을 행하는 것은 곧 그것을 당신의 본질 자체로 이끄는 것이라는 말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확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나에게 확신시킬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에 따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진위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인지 혹은 사람의 것인지를 알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신 판별 방법입니다.

주의 「뜻」이 계시되다.

「만약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알리라」하는 문

제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주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의문이 야기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이란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냐는 질문을 극히 평범하게 설명하시고 정의를 내리셨으며, 그 판별법도 간단히 규정을 지으신 것처럼 「그의 뜻이 무엇이나?」라는 문제도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경륜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어졌다고 세상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과 삶의 원칙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의 절정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원칙과 조화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진리로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명은 곧 전 인류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웃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이러한 사명감은 다른 사람들 보다는도 교회 회원들의 어깨 위에 더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교성 88 : 118)

교회의 회원은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이러한 지식은 회개와 침례의 원칙을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해 주며, 이해를 빠르게 하고, 마음을 개선해 주는 성령의 은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를 획득하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안내자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조력자를 얻게 되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안내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사람에게 이것이 없이 지성으로만은 진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람은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성 하나만이 진리를 찾는 충분한 수단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성보다 높고 확실한 안내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안내자란 바로 신앙이며,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고, 도래된 모든 일을 보여주며, 또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보다 높은 영과 교통하도록 이끌어 주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 영을 구하는 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의 책임입니다.

한가지 사실을 알거나 진리의 확신을 단순히 느끼는 것으로는 불충분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야고보 4 : 17) 예언자 요셉 스미스

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깨달아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교성 107 : 99)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에게도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며, 하나님이나 양심이 가르치는 빛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이 위에 여러분의 올바른 감정이 허가됩니다. 내 양심이 어느 특정한 옳은 길을 가라고 말할 때, 만약 내가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여러가지 약점이나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이리 저리 흔들리는 것을 알지만,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곧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 유의하십시오. 즉 우리가 기회를 가질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리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의로운 일을 행치 못하면 우리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어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에서 그 실행을 더 힘들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숭고한 감정을 표시한다면 행동을 실천으로 옮긴 다든가 차후 같은 감정을 표시하기란 더욱 수월한 것입니다.

그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들의 이웃을 도와 복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계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멧세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완전하게 조직되었습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또한 신권 소유자들의 의무이며, 모든 보조조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행하는 회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책임을 이행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가까워 지며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님의 부활의 실재와 이 위대한 사업의 신성성 그리고 진리와 힘과 본질과 위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그는 살아 계시다는 성스럽고 영원한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과연



필요한가?

하워드 떠블유. 헌터
(12사도)

여러분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거나 훌륭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구태여 어떠한 종교 단체에 참석하거나 교회의 회원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잠시 나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성경구절과 옳은 원리를 비교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장본인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주님께서는 다음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혹은 나의 신성을 믿으며 내 가르침이나 내가 이룩한 속죄의 희생때문에 갖게되는 단순한 신앙심을 표시한다고 해서 그가 하늘 왕국으로 들어 갈 수 있으며, 승영의 보다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추리면 「믿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으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단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한다」 하셨으니,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에서 가지를 치고 일하는 자만이란 뜻입니다.

생활의 올바른 방식이 대체로 다루어졌고 주님께 의하여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서 그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 만큼 유익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아 내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요성 89:18~21)

이 귀절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란 부분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단지 믿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 대하여 언급한 그의 편지속에서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야고보 1:22~25)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초대 교회는 사도들의 인도하에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고,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회중에서 행하였던 것과 비슷한 주일날의 의식이 행하여 졌습니다. 이 예배 의식 가운데는 구약성서의 성구를 봉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약성서라고 알려진 책의 저술은 물론 편찬되지 않았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시편과 기독교 찬송을 불렀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다음 말을 함으로써 종교의식의 참석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되지 말라.」 야고보에 의하면 교회 의식에 있어서 참석의 가치는 귀로 들은 말이 행동으로 실천될 때 살아 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그가 들은 진리를 매일 생활에 적용함이 없이 성실한 예배자가 될려고 한다면 거울을 한 번 쳐다보고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 그의 예배는 무용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율법의 요구 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로마서 2:13) 환언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상속된 신앙의 전통 속에서 명예의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는 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상념의 변장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예배하는 자에 불과할 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두채의 집에 관한 비유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입으로만 예배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피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6 : 46~49)

이와 같은 원칙은 다른 것에 결부시켜 보아도 역시 진리임이 입증됩니다. 우정도 이기심이란 모래 위에 그 근거를 둔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도 육체적인 매력 이외의 아무런 기반이 없거나 보다 깊은 사랑과 성실성의 터전이 없을 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와 똑 같은 원칙은 교회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독단적인 정통주의만으로도 충분치 않으며, 형식적인 신조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신앙은 그들의 터를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원칙의 반영인듯 싶습니다. 「일」하지 않는 꿀벌은 곧 벌집에서 쫓겨 납니다. 나는 길설이나 개미집 주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바라보노라면 나는 그들이야말로 믿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행동하는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암탉이 꼬옥꼬옥하는 소리만 내 가지고는 모이를 찾지 못합니다. 땅을 헤집고 찾아야만 합니다. 푸른 해초와 움직이지 않는 찌꺼기로 차 있어서 흘러내리지 않는 연못은 습지의 전염병을 생성케하는 장소가 되겠지만, 바위를 스쳐가는 맑은 팔짜기의 물이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 내릴 때는 갈증난 목을 추겨주는 물이 됩니다.

기초 없는 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홀로도 살아가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기쁘고 편안한 기초 위에 자신의 생을 쌓겠다고 하는 천박하고 무모한 관념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청명한 한 그의 어리석음은 감춰질 수 있으나 언젠가는 홍수가 나고 걱정의 흙탕물과 함께 예기치 않은 유혹이 휩쓸어 닦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성격이 입으로 예배하는 것 이상의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그의 모든 도덕적인 자세는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스스로 지식을 터득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 그 힘을 의뢰합니다.

산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공공목적을 위한 열의로 구성된 자는 성공을 이룩합니다. 혼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쉽게 성취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을 제외한 사회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르쳐진 원칙 위에 기초를 둔 가정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가정의 식구들은 계명을 보다 더 충실히 지키도록 능력을 발전시키고 행하는 자가 될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단체 안으로 가정 단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보다 큰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된 가족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만형제」, 그리고 서로 서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기독교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율법과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고 종교교육면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강한 간증을 뿌리박게 하고, 또 말씀(율법)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회를 통하여 해의 영광과 영원한 승영의 길을 따르도록 각 회원을 돕고 격려하는 것들이 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복음 전도사업을 하실 때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 7 : 21)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교성 89 : 18)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로마 2 : 13)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누가 6 : 47) 이러한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권고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가 전도사업을 하는 동안 세워진 점으로 보아 교회는 인간을 위하여 선택된 것이 아니고 인간 생활에 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사명과 생애는 모범이요,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에 의하여 이룩된 일들은 우리에게 권고로 주어졌으며,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날의 인간 생활에서도 초대 교회가 그에 의하여 세워졌을 때 처럼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며, 극히 수동적인 신앙 고백이나 하는 정도가 아닌, 자기 임무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회로 존재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우리들을 유리된 생의 암흑으로부터 경전의 권고를 따라 행동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믿음의 있는 곳, 즉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과 가족과 교회,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국가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인특기의

보상

제임스 티. 튜크

사람들은 좀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른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나 재정적인 보상을 중요시 하지만, 성공이나 행복의 느낌같은 만져지지 않는 것들은 역시 가치 있는 보상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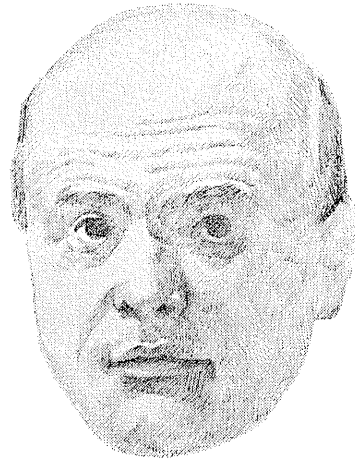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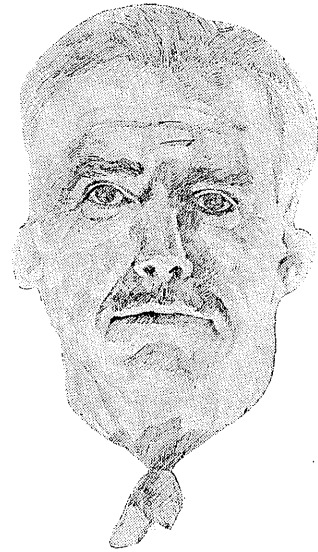
우리들 유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옛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자기 완전할 수 있거나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다 자기 나름으로의 효용성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요, 칼의 기능은 자르는 것이라는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기능에 대한 위대한 도덕철학이 자라왔습니다. 인간의 특징적인 장기는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다른 생물로부터 구분하게 하는 특질인 것입니다.

또한 희랍 사람들은 인간들 개개인의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서로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개성이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조사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과를 구분지어주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특기는 어떤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위하여 추구되어야 한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성취된 완성은 그것이 바로 특기의 보상인 것입니다. 활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나 그 안에서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인류를 위하여 저극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그 활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가치가 있으며, 우리 이웃에게도 안녕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 결코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표창을 받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교성 58 : 27)

이 가치의 개념과 인간의 완전성은 우리 기독교인의 유산과 함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 장점등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고, 자아표현, 자아실현, 창의력의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의 위치나 명예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지 사물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몇개의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 하는 가운데 도움이 될만한 한 대안을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업. 기능의 원칙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재능과 능력을 표시할 수 있고 경제적인 보장을 무시하면서라도 그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많은 직업이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은 싫증나고 늘 반복되는 것이며, 긴장과 압박감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을 표시할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의 원칙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직업을 찾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가치있고 유용한 직업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위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선의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직업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보답이 올 것입니다.

가정관리. 오늘날의 주부의 역할은 오십년이나 백년 전과 훨씬 다릅니다. 오늘날의 주부는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사회나 교회 일에 보다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부는 가정과 가족에 얽매어 있어 사회에서 그녀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기능의 원칙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활동을 발견하고 장점을 살려 그녀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일에서 기쁨을 찾게 하며, 그 활동이 유용하고 기쁨을 주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데이트를 하는 소년이 때로는 그러한 데이트로 평가될 스스로의 위신을 염두에 두고 아름다운 소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녀도 중요한 무용회에 참석 한다는 생각에서 자신은 좋아하지도 않는 소년으로부터의 데이트 신청을 응낙할런지도 모릅니다. 혹 그녀나 그는 잘 생기지 못했다고, 그의 성격이 나쁘다고, 그가 춤을 잘 못

춘다고 그 데이트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과의 본질적인 기쁨보다는 오히려 오락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하게 되고 그와 같이 있기만해도 행복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호관계란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한 수단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훌륭한 요리사나 재정적 후견인을 갖기위하여 결혼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서 오게되는 보상 때문이 아닌,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가치때문에 그들과 함께 실제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으로 인한 실제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교회활동.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맡음으로서 오게되는 보상 때문에 교회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 앞에서 권위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겸허한 자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지 못하고 가면으로 영성과 겸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능의 원칙은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근본 목적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진실로 우리는 장년이나 유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진을 혹은 계보 위원회의 일원이나 정원회 회장단의 직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혹은 우리가 어떠한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것이 두려워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봉사보다는 보상에 우리의 초점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근본 목적과 우리의 부름에서 보다 훌륭하고 가치 있는 형상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오게되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전면에서, 즉 우리의 직업, 우리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교회 활동 등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특성을 찾아 그 위에 우리의 초점을 뒤편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 있는 목적과 내면의 요구를 찾아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꼭 우리의 이상에 부합되는 장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인간에게 온갖 형태의 선한 소망을 갖게 하되 그 소망의 결과나 우연 발생적인 이익에 부심하지 말게하고 오직 소망 그것에 몰두하게 하라.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금전이라던지, 지위, 권세 등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관리 감독란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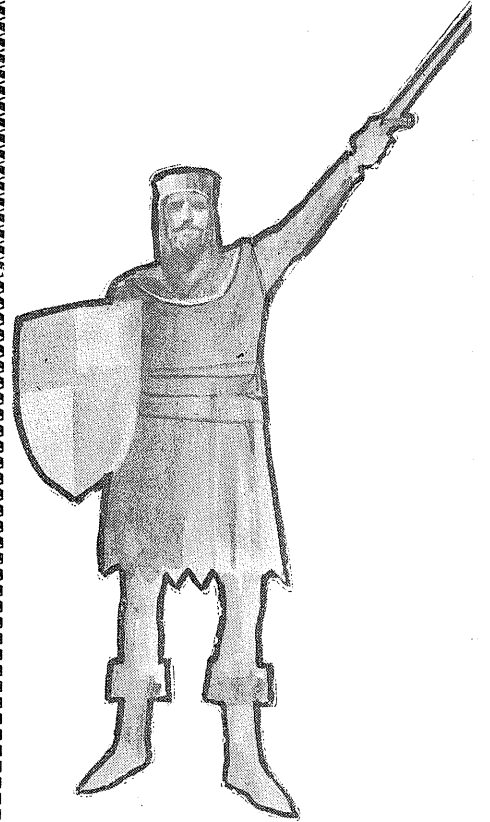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자 제 력

존 에이취. 반덴빅

자신을 다스리고 걱정과 욕망
과 공포를 지배하는 자는 왕
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 밀톤 —



매년 수 많은 사람들은 악성 암 세포가 자기의 몸 일부
분에 깊숙히 파고 들어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하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날 암은 인간에게 가
장 무서운 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세포는 인체
의 조직에 조금도 유용한 것이 아니며, 이 세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성장, 분열됩니다. 금년과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이 파괴적이고 걸잡을 수 없는 힘은 이
것이 정지될 때까지 암 환자들 위에 인간 생명의 무서운
종말을 고하게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발견해,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생
명을 연장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소비해 가며 그
날을 재촉하는 노력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보다
중대한 종류의 암, 즉 정신적인 암을 선전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아독존의 횡포자들은
방종이 자연적이고, 옳은 길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들은 약, 알콜성 음료, 저속한 간행물, 도덕의 타락 등등
의 방종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마적인
것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죽음의 상인들은 악에
대항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방위력 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 즉 자제의 능력을 강탈하는 방종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혼란시키고 가르치면 더 가
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의 욕망과 걱정
을 절제하면 큰 발전의 기쁨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방종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제
와 금욕은 기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허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거짓이
며 복음이나 발전의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월터 스카
트 경은 다음과 같이 횡포자의 생각을 일축해 버렸습니
다. 「금욕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분 좋게 실천해 보라. 그리
하면 그때는 가장 격렬한 몽상가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보
다 더 숭고한 세상과 운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스카트 경이 암시한 대로 사람이 자기들의 뜻에 욕망과 걱정을 정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할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방종을 내세우는 자와는 정반대가 되는, 자제는 발전과 기쁨의 진정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테니스는 「켈러드 경」이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은 마치 열 사람의 힘과도 같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순결하기 때문에.」

자제란 말이 특히 교회의 젊은 남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잠시동안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진실로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여움과 충동, 불순한 생각, 자만의 유혹에 더 이상 복종되지 않을 것이며 걱정에 의하여 움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테이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님은 자제력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바울의 답변을 빌어보면 구원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언자는 이와 같은 스스로의 반문에 이렇게 답하고 제시합니다. 「이 세상은 첫째 동물적인 본능과 걱정, 욕망의 지배적인 영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생의 보화 438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자제력이 생활 목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특히 「동물적인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 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할 지니라는 신성한 법령은 멸시와 격노를 불러 일으키는 고통과 불행을 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스스로 정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점을 본받음으로서 우리는 만족을 위한 동물적인 욕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생의 보배 439 페이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는 욕망에 지배되는 일이 없이 자신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고 모든 면에서 순결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걱정을 지배하는 자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생활하여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영원한 결혼의 기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밀턴은 인간의 자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걱정과 욕망과 공포를 지배하는 자는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역사를 더듬어 이 말의 진리를 타진해 보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역사의 배경 가운데에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사이야 왕의 아들이었던 암몬은 그 나라의 왕좌를 상속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이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싸움터에서는 레이맨인의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가 수 많

은 적의 무리를 무찌르고 왕의 양떼를 지켰던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위대한 힘과 용기의 모습을 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암몬은 그의 걱정과 자만심을 자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 많은 사람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했고 큰 영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 왕이 갖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을 허가 받았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음에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큰 기적들을 행하였으니 이로써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

「보라 주께서 수천 형제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 내지 아니하셨느냐? 그리하여 저들은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우리에게 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함이라. 어찌 우리가 이를 기뻐하지 아니 하겠느냐?」

「주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형제들을 지옥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으니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리로다.」

「자 우리가 기뻐할만 하지 않느냐?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우리만큼 기뻐해야 할 큰 뜻을 가진 자가 없었느니라. 나의 기쁨이 넘쳐 주를 자랑하나니, 주께서 모든 권세와 지혜와 이해를 갖추시었음이었,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라.」(앨마 26 : 12~14, 35)

역사란 비슷한 사건으로 꼭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난폭한 걱정으로 인하여 은혜로운 자리를 상실했던 다윗에 대한 애기와 다윗의 생활과 스스로의 걱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았던 나이 많은 요셉의 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통해 오는 기쁨과 성취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교회의 젊은 남녀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의 역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제력을 통해서 오는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에 깊이 탐닉하는 자는 사회에서는 물론이요, 특히 주님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도 파괴 탐탁치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방종하는 자는 노예와 같습니다. 로버트 버튼은 「네자신을 정복하라. 이렇게 될 때까지 그대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욕구에 종속되는 것 같이 그대 자신의 욕구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박수 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참된 가치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이 세계에 있어서 얼마큼 자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브의 훌륭한 모범

메리온 지. 롬니
(12사도 정원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기회에 대하여 상호부조회 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여 주고 있는 대로 어머니 이브의 다섯 가지 위대한 성격의 특성을 여러분께 말씀 드림으로서 제게 맡겨진 이야기를 대신 할까 합니다.

우리는 그가 육체를 가진 첫 여자로서 모든 인류의 어머니였음을 잘 압니다. 저는 앞으로 짧은 시간에 그녀가 상호 부조회 회원에게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여성들에게도 의로운 생활 가운데 어머니로의 가치를 보여준 표본으로서 위대하고 숭고한 분이였음을 이해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일했습니다.
2. 그녀는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어진 사명을 다 성취했습니다.
3. 그녀는 남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4. 그녀는 복음을 배웠고, 이해했고, 감사했습니다.
5.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죽어야 할 몸을 가진 여자로서의 이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값진 진주 모세서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쫓아낸 후 아담은 내가 명한 대로 땅을 갈며 들의 모든 짐승을 다스렸으며, 이마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아내 이브도 그와 함께 일하리라.」(모세 5:1)

남편과 같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후, 이브는 아담과 더불어 주 하나님의 선언이 심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베게 가지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리니……」(창세기 3:17~19)

생계를 위한 용감하고도 의로운 투쟁에서 이 숭고한 여인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대로 「함께」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노동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공동의 목적과 이해, 협조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는 노동에서 그녀는 현세대의 모든 딸들에게 까지도 투쟁의 가치를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노동의 성질이 그 때 이후로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진정한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환경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아내에게 지워 아내가 가정 밖으로 나가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녀는 「홀로」나 혹은 「남편과 경쟁하는 자세」로 일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말일성도로서의 여성들, 특히 상호 부조회 회원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잘 생각하여 「그의 아내 이브는 그와 함께 일하였느니라」라는 표현에 담긴 위대한 여성으로의 성격의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일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하니라」(고전 11:11)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였다」라는 내용을 반복하여 음미한 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어 보면, 그녀는 나아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해 줍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아니 아내는 아담의 아들 딸을 낳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 시작하니라.」(모세 5:2)

우리는 후에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5:16~17) 아마도 그녀는 셋과 그 외에 여러 다른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많이 낳았으며」(모세서 6:10~11)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브와 그 외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맡기신 책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순결과 허랑방탕의 형태와 같은 악성들을 용서하고, 참고, 격려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계획을 시도하거나, 유산을 사주하고 합법화하는 우리 사회의 추악함은 생활 기능의 매춘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정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은 우리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비극의 결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악행을 거듭해서 여러 번 비난하시었습니다. 주는 십계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니파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힐책하셨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시작에서도 그런 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59편에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와 비슷한 어느 것도 행하지 말라]고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간음이나 살인을 의미하신 정확한 뜻의 범위를 성구 가운데서 아직 찾아보지 못했으나, 이 구절이 뜻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위적인 유산행위는 그런것에 속하지 않음에 생각합니다. 말일성도의 여성들은 이 사악한 행위를 반대하고 계속하여 지상에서 가장 숭고한 방파제가 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죽어야 할 육체를 가진 이브에 관해서 세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가 남편과 함께 주님을 부르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부르매 에덴 동산 동편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를 뵈지는 못하였나니, 이는 주의 임재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저들에게 문이 닫혀 있음이더라.」(모세 5:4)

이것은 인간이 기도를 한 최초의 모습이 그려진 성경구절입니다. 주어졌던 당시의 환경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들은 추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고통과 고역과 슬픔을 통해 그들은 자신과 가족과 후손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삶의 목적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한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큰 곤경을 겪으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일을 기억하며, 절망을 할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정한데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만은 아니었으나—그때 그들은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음—복음의 이해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는 불가피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가족을 하나로 단합하게 하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현명한 아내나 어머니라면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매일 가족기도를 추진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이나 가족의 다른 식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녀는 단지 이브의 모범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요셉 스미스의 조언자처럼 남편이 훌륭한 일을 성취하도록 내조한 표본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므로써 영생의 길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더욱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간구에 대답하여 주님은 두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이것이 인간들에게 기도를 명한 첫번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짐승들 중에 처음 난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것」이었습니다(모세서 5:5)

이 계명에 대한 절대 복종의 결과는 이브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힘을 가져

다 주었습니다. 아담도 주님의 계명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날이 지난 뒤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지느냐?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서 5:6)

그 후 그 천사는 아담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가 바친 희생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때의 절정에 받을 무한한 희생과 유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만이 아담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도 와서 가르쳤고, 하나님도 직접 “그의 음성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전세, 지구의 창조, 그가 참여하였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타락, 죽음의 이유, 그리스도의 사명, 전체 복음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성령의 은사를 위한 불로서의 침례, 부활, 불사 불멸, 영생등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아담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의 영으로 불뿔러 물 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물 속에 눕히었다가 물 밖으로 끌어 내심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아담은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내려 오시니 이같이 영으로 태어나 속 사람이 살아 났더라.

그가 들으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앞에 있어 하나가 되나니 하나님의 한 아들이니라. 이같이 모든 인간은 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니라.」(모세서 6:64~66, 68)

이 복음의 계획은 아담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다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죽음의 상태로 일단 분리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날에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성심으로 찬탄하였고 세상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가로되 주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 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니」(모세서 5:10)

그러면 이브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기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 이브는 이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이다」(모세서 5:11)

아담과 이브가 복음의 위대한 소식을 통하여 경험한 행복과 기쁨과 위안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펍 오랜동안을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역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 분명코 이브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한 자기의 책임을 후회하고 자아 반성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속속 주어지고 복음이 밝혀졌을 때 이브는 주의릴 기우어 들었고 들을 때마다 그 뜻을 따랐으며 그녀는 이해했고 믿었고 그 다음에는 이를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

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로다.」(모세서 5: 11)

참으로 어머니 이브와 함께 그의 남편과 자녀가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며 평가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가장 가치 있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성경구절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한 또 다른 그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과 함께 이브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자녀는 죄 가운데 잉태되는 고로 저들이 자라기 시작하자 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나니 저들이 선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도록 쓴 것을 맛 보느니라.

이리하여 저들이 선악을 구별할 힘을 갖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라. (우리는 그들을 항상 다스릴 수는 없으나 가르칠 수는 있느니라.) 내가 다른 율법과 계명을 주었노라.」(모세서 6: 55~56)

주가 그들에게 준 다른 율법은 회개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곧 어디서든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절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깨끗지 아니한 것이 그곳에 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베게 계명을 주어 너희 자녀에게 이 일을 자유로이 가르치게 하노니… 아담

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모세서 6: 57~58, 5: 12)

오늘날 모든 말일성도의 부모는 이러한 점에서 아담과 이브의 모범을 따르라는 성스러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831년 11월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또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25, 26, 28)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약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라도 어머니 이브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가 있을 때,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함께 일했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사명을 성취하였으며, 남편과 함께 기도했고, 복음을 배워 이해하고 이에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와같이 기억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본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곧 여러분의 목표한 바를 성취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맛들이고 절이고 녹녹하게 하기

홀로렌스 비. 페녹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요리책에는 알콜성 음료를 필요로 하는 요리법이 많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법이 마음에 들어서 메뉴를 짜는데 넣고 싶은데 집에는 알콜성 음료가 없으니 포도주나 술 대신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느냐고 질문해 옵니다.

여기에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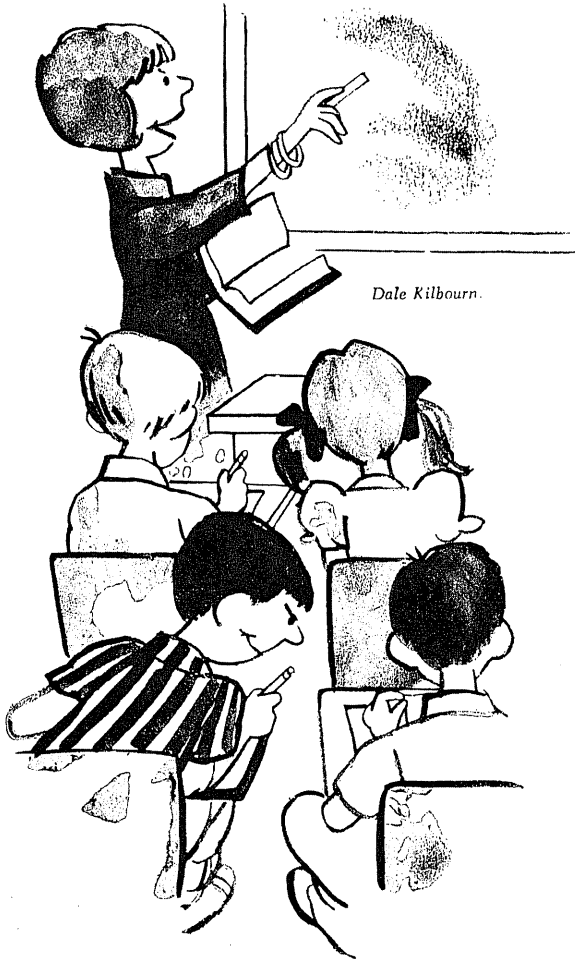
알콜성 음료는 대개 세가지 이유로 요리에 사용됩니다. 첫째는 음식을 향기롭게(맛있게)하고, 둘째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셋째로는 빵이나 과자를 녹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향료로는 병에 담긴 과일 즙을 사용하면 됩니다. 절이고 부드럽게 하는 일이 더 어려운 문제인데,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알콜 속에 들어 있는 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과, 사이다와 레몬 주스, 식초산을 알콜성 음료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흰 포도즙은 술의 대용품으로 훌륭합니다.

만약 포도주가 필요한 요리라면 단 맛 없는 대용품으로 사용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의 대용품으로 새우에서 짜낸 즙을 사용합니다. 오렌지나 포도즙과 같은 과일즙은 쿠키와 디저트 혹은 과일로 만든 과자 속에 넣을 포도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고 진한 과일과자를 녹녹하게 하고 싶다면, 그것을 천에 잘 싸서 검은 포도즙 속에 담가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자에서 더욱 향취가 납니다. 흰 포도즙은 흰 과일과자를 녹녹하고 향기있게 만드는데 가장 좋습니다.

흰 포도즙은 과일 칵테일에 부어도 펍 좋습니다. 사과 사이다는 치즈 요리에 넣는 술이나 포도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리에는 콩소메(맑게 끓인 고기 수우프)와 부양(쇠고기 새고기 따위의 맑은 고기 국)을 술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면 맛을 더 낼 수 있고, 짠맛을 덜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페이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학생 여러분! 시험을 치는 동안 여러분이 컨닝을 못하게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험을 양심껏 쳐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반응을 가져 오겠습니까?

「코니야, 너는 오늘 혼자서 집을 봐야 되는데, 처음이지만 놀래지마라.」

「내일 숙제는 다음 장을 읽어 오는 것이예요. 해롤드 이번만은 꼭 준비해와요.」

선생과 부모로서 우리들은 제안의 방법을 가꿈 무시하거나 파소 평가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된 일을 하게 하는 정확한 방법은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코니에게 놀래지 말라고 말했다 때 그녀는 코니가 놀렐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무서워 떨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무서움을 느꼈다는 말이 성립될까요?

아침 일찍 세미나를 담당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대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우를 세밀히 분석한 끝에 발견한 것은, 그가 학생들이 늦을 것을 「기대했다」는 점을 학생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왜 사내 녀석들은 교실에 들어와 여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소년과 소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리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밀퍼드 씨, 커트렐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례는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는 대로의 행동을 사람들은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비슷한 태도의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성인이 다 된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누차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성찬식에 참석한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는 그곳에 참석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성찬식

에 참석하라고 거의 (혹은 전혀) 안했을지라도 이 기대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는 항상 신권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게 하십시오. 12세 가까이 되었을 때 아버지나 감독은 그가 신권을 받은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설명해 줍니다. 그 소년이 집사로 성임된 후, 첫 일요일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 신권회를 준비할 시간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매주 아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년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알게되었고, 앞으로 그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가 깨워주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도록 자명종 시계를 준비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일요일 아버지가 깜빡 늦잠을 주무셨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아버지를 깨워 신권회에 참석하지 않을 작정이시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스테이크 감독 회의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기에 그의 와드에 속한 사람들은 보조조직에 부름을 받으면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감독이 대답하기를 언제든지 자신이나 보좌들이 훌륭한 교사나 활동적인 역원이 될만 한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그가 부름에 응하였을 경우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에 대한 굳은 신임도를 보여 주었고, 맡은 바 책임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감독단이 기대하는 것 처럼 직책을 성공적으로 이룰 자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 보겠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감독은 지부의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면서 「자! 이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역원이 그 맡은 일에 많은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사 기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명백한 것은, 한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동안 부닥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좀 덜 명확한 것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기대를 품게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부름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제명에 순종하며, 복음공부도 자기 자신이 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젊은이가 선교사가 되는 일을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그가 선교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서부대학교의 한 강사는 학기말 시험을 감독하면서 학생들이 컨닝하리라는 「기대들」 보였습니다. 그 강사는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에 몰두하고 있을 때, 잘 살피기 위하여 높은 책상 꼭대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시험을 치뤄본 경험이 있었던 그 강사는 그들이 컨닝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견제하려 했고, 또 한 학생들도 그 강사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학기말 시험을 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컨닝의 방법을 궁리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법을 강사의 삼엄한 눈초리를 피해가며 사용했습니다.

부리감 영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동안 시험문제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거나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없는 이상 교실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리감 영 대학교에서의 컨닝이 다른 학교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적어도 컨닝은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의 학생들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때 자녀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바람직한 생활을 하도록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자녀로 하여금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훌륭한 교사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여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로 들어 봅시다. 즉 수업이 끝난 후에 그 문제의 학생을 교실에 잠깐동안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의 행동이 교실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조용히 타일러 줍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한 두가지를 알려 줍니다. 아마도 부모나, 감독이나 주일학교 회장을 만나 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학생에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합니다. 혹시 그 학생은 자기의 행동을 고쳐볼 기회를 제시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때 교사가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자택일의 방법이 정리된 후 그 학생에게 어느것을 택하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는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을 택할 것입니다. 이 방

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알게 하되, 만약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시된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중요한 사실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학생이 교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한 가지는, 교사가 준 조건 아래서 학생이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약속하거나 위협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교사가 분명히 더 심한 처벌을 가해올 것이라는 염려로 위축되며,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이 자기가 말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되, 마치 그가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 처럼 대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는 여러분이 바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9월 성구암송 및 이분반 이야기

1일 요한복음 14장 8~9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8일 이사야서 29장 11~12절 (물문경)

15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22일 신명기 5장 18절 (제 7계명)

29일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성령의 열매)

니파이 삼서 18장 11절

「너희가 이같이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찌니 이는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라. 또한 너희가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앙개조 제 10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22절 (감사)

마태복음 7장 18~19절 (선행)

고린도전서 15장 21~22절 (부활)

신앙에의 충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건초장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건초를 곡간에 쌓아놓고 지금까지 건초를 걷어 들었던 그 장소로 마차를 몰았읍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북쪽으로 가자! 저기 있는 건초가 더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레대로 이쪽부터 싣고 가면 어떨까요?」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았읍니다.

그러나 그 부근에는 잡초 뿐이어서 좋은 풀이 못 되었읍니다.

「아니다 얘야! 저기 탐스러운 건초가 있는 북쪽으로 마차를 몰고 가자. 이것은 십일조를 낼 것이란다.」

「그렇다면 더구나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지, 얘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데 지나치게 좋은 것은 없는 법이란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십일조에 대하여 들어온 어떤 가르침 보다는 더 훌륭한 교훈이었읍니다. 건초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정신은 저희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읍니다.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상 받은 클로비스 지부의 신앙

버질 엔. 코발렌코

어느 일요일 아침, 서부 선교부의 클로비스 지부(뉴 맥 시코)의 지부장 개리 비. 룬드버그 형제는 신권회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의 둘째 건물을 수개월간 지어 왔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들에게 건물 짓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건물을 지어주던 건축 선교사가 전출되었고, 건축 책임자는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17,000명에 잔디를 심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땅을 갈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들이 주말마다 교회를 짓는 일에 참여해야 하므로 야기되는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헌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라도 없습니까?

형제들은 교회 건물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욕망과 가족을 떠나 자기들이 바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말도 하지 않고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토론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하루를 택하여 신권 소유자 전원이 이 일에 참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국군의 날이었기 때문에 지부회원들은 가까운 비행장에 나가 일하게 되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먼저 의견이 다소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부장단의 제2보좌 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물 짓는 일을 쉬고 방학을 하죠. 그래서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낸 후에 전원이 모이기로 하면 어떨까요? 국군의 날 다음에 오는 주말은 현충일을 겸하여 사흘 동안 공휴가 겹치게 되므로 아마도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 의견을 다룬 후에 룬드버그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지부 전체가 전부 호응할 수 있는 움직임을 조성해야겠습니다. 가족이 전부 나와서 일하는 날로 하루를 정하고, 건축기금을 위한 음식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준비한 음식을 형제들은 교회 주차장 편편한 장소로

바로 그때 마치 일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거나 하려는

것처럼 일진 광풍이 한 차례 불어왔습니다.

운반할 수 있으니까요.

룬드버그 지부장은 지부회원은 5월 27일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되는 금식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 의견은 신권회와 성찬식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구체적인 단지에 이르자, 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더 많아지는듯 했습니다. 날씨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멕시코의 동쪽 부분인 이곳에서는 때때로 시속 55마일이나 되는 돌풍등 강한 바람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17,000명은 고사하고 작은 땅에라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기란 거의 불가능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비는 오지 않아 바람과 햇빛에 땅은 굳을대로 굳고 매말라 있었습니다.

지부 회원들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일하기에 기쁜 날이 되게 해 달라는 열렬한 기원의 기도가 한 주일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일할 날을 앞둔 수요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두 형제는 오후와 초저녁에 그 땅 주위에 물이 잘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큰 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번개와 천둥소리가 울리자, 비는 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날 저녁부터 목요일 밤까지 계속 쏟아졌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비는 그칠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룬드버그 지부장은 금요일 자기의 일을 시작하면서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온 비로 충분 하나이다. 잔디가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비가 더 와서는 안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물이 전부 땅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에 하늘 이쪽부터 저쪽까지 번갯불은 찮어도 클로비스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일고 햇볕이 나고, 그리하여 땅에 있던 많은 물을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부회원들은 토요일이 화창하고 바람없는 날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하였으며, 또한 감사와 만족의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5시30분에 교회당 앞에는 수명의 형제들이 췌이, 갈퀴, 삽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솟

아 올랐고, 주위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지부회원들은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열을 지어 섰고, 회원들의 손에 들린 연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는 잡초를 뽑아내고, 크고 작은 돌을 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쟁기와 트랙터, 로터틸러와 의바퀴, 손 구루마 등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정오가 되자 룬드버그 지부장은 모든 사람을 유년 주일학교 교실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자연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참석한 회원에게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150명 이상의 지부 회원의 겸손한 감사와 마음과 영혼이 정말로 하나가 된 가운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부에서 마련한 음식 맛도 형용할 수 없이 맛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으나, 기분좋은 휴식을 취한 뒤라 어쩔 수 없이 일의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마치 일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거나 하려는 것처럼, 일진 광풍이 한 차례 불어 왔습니다. 거의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검은 구름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갈퀴질하여 흙을 편편히 할 땅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은 상당히 빨리 끝났으며, 마당과 전물도 빨리 청소를 하여 하루의 일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칩채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낮에 회원들 틈에 끼어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식이 거의 다 끝났을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예배당 주위에 사는 회원들은 클로비스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소낙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 구름은 예배당 주위를 감돌았고, 성도들의 노력에 대한 결정적인 축복처럼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웃 동네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지부 회원들의 꿈과 기도는 꼭 4개월후인 1966년 9월 웨스턴 스테이트 선교부의 빌 에프. 스코트 선교부장님이 클로비아 지부에서 열린 지방대회에서 현당식 기도를 드렸던 순간에 성취된 것입니다.

빈 책꽂이



푸로렌스 비. 페녹

어느 가정이고 들어가서 정선된 책으로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방을 대할 때에는 주인이 마치 여러분의 친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집은 적당히 사용할 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간수하는 것만으로도 집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까. 부엌 스토브는 인간의 육체적 시장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나, 책으로 뽀뽀히 둘러싸인 벽은 인간의 정신적 필수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소년 하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고 나는 백만 권의 책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주신 단 한 권 뿐이지만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자 제 아버지는 책 한 권을 사서 어머니께 보이시면서 이것은 우리 아들을 위한 것이요 라고 했답니다. 자식에게 전할 수 있는 상속물로서 얼마나 훌륭한 것이겠습니까? 책이란 분명 마음과 영혼이 원하는 어떤 곳으로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아 지식의 샘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도서관에 손수 데려다 주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열성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반복했다면 그는 도서관에서 붙어 사는 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냄새가 풍기는데, 유난히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아침이나 생일 그리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러한 종류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눈을 감고 이 그윽한 향기를 상상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도서관에 혼자 남겨놓고 나오면서, 열 두시까지 테리러 오지 않을거라고 말하면서 느끼는 희열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책으로 가득 채워진 선반을 둘러보고 그 가운데서 두 세권을 택해 조그만 책상 곁에 있는 작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항해를 시작하려 할 때 갖는 행복감이 어떨까요? 아마도 당신은 책상 뒤에 앉아서 사무 보는 여자를 한 두번 쳐다보고는 속으로 「저 여자야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책을 그렇게도 사랑하니까요.

책도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책을 그렇게 만들어 줄 때에만 그렇습니다. 책은 사랑하고, 옹호하고, 즐거워하고, 조사하고, 소비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 중에는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정선된 책은 누구에게나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긴 24캐럿 금을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장 하나만 넘기면 그리스나, 칠리, 알래스카 등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 천재적인 예술가, 최고의 요리사, 우아한 무용가, 혹은 스키 선수가 있는 세상으로 의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안내할 능력이 책에는 있습니다. 이 지구를 콜럼버스, 쿡, 새들과 함께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타고 2,500년 전의 작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과학의 경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 용기, 위안이 인쇄된 책장에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읽으면서 그에 나타나 있는 생각을 연관하여 보도록 하십시오. 손에 펜을 잡고 정신을 통일하여 내용을 읽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다 감정이 폭발쳐 절정에 오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필 끝의 지우개를 물어뜯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기도 할 것입니다. 독서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무엇인가 알려면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면 틀림없습니다. 독서는 또한 여러분이 좀더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새로운 상념을 두려워 하지 말고, 문제를 한 쪽에서만 해결하려 들지 말고, 더 많이 읽어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공부하고 독서하는 일은 「어느 때」나 여러분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이가 먹어 간다는 것은 더 행복한 길입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상념은 마음을 긴장하게 하며, 동시에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매일의 독서는 사람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를 줍니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언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으십시오. 독서가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자가 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편〉

형제님, 저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쳐 형제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만, 저와 저의 애인은 지금 결혼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는 대학 일학년 에 재학중 입니다.

답 : 형제님께로 보낸 편지를 따로 받으시겠지만, 여기에 형제님이나 그 밖에 다른 젊은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 편지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어떤 형제가 그의 동생의 편지를 받고 보낸 답장입니다. 이 글을 주의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의 조언을 편지로 물어 왔다만, 정말로 내가 조언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할지? 너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문제」라는 말 대신 「입장」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 너는 문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갖고 있지 않은 거다. 네가 함께 데이트하는 그 여자가 과연 너의 생활 표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여자에게 있다고 본다.

보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이어서 교회의 표준은 세상에서 제일 높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보브, 너는 주의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함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너는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걸 모두 알고 있는 너는, 사실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거다.

너, 이 일에 대해서 너의 애인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해 본 일은 있었니?

또 그녀에게 교회에서의 네 위치를 설명해 준 일이 있었니? 네 모범이 될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네 애인에게 네가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또 2년이나 2년반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줘라. 그렇게 하면 그녀도 생각하고 결정하는 바가 있지 않겠니?

보브, 나는 선악간에 네게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네게 전해 졌다고 생각한다. 네가 지혜를 구하는 경우 주님께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를 주시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하신다. 이 세상에 선교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할만한 여자는 없다고 본다. 만일 진실로 복음을 이해하는 여자라면 그렇게 선교사의 포기를 원하지도 않을 거다. 내 말에 수궁이가 가질 않거든 잠시 동안만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렴.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네 스스로의 위치를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선교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명해 질 것이고, 선교사업의 훌륭한 기회와 또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는다.

교회와 너 스스로가 너의 애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사람이 주께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너의 애인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 그만큼 안목을 갖춘 여자인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려라.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먼저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또 편지하렴. 형이 좋다는게 그런거 아니겠니.

사랑하는 형 바울로부터

멀고 먼 아리조나 사막에 나어린 나바조 인디안 소년이 살았습니다. 1949년 9월 5일, 보잘 것 없는 토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바하 인디안이 사는, 흙을 구워 만든 붉은 오두막집에서 말입니다.

디네의 아들

돈 스미스

나바조 인디안으로 태어난다는 것.
노란 모래 나라의 아이가 된다는 것.
그리고 디네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하늘을 찌를듯 높고 붉은 벼랑 기슭에 놓여 있는 토담 오두막입니다. 그것도 친구 몇이 와서 세워 준 것인데, 육모형이고, 통나무를 엮고, 진흙을 바른, 지붕에 굴뚝을 낸 집입니다.

디네의 아들은 완성된 토담집 안에서 깨끗한 옥수수 죽으로 복을 빌고,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가린 담요문 뒤에서 북에겨운 다정한 음성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여름이면 토담집은 삼목나무 그늘에 의지하여 비, 바람을 막고, 그 안에선 검은 얼굴의 인디안 소녀가 양고기를 구우며 옥수수죽을 지켜서서 짓는 모습이며, 달이 하늘에 낮게 걸릴 때 누워 있는 침대의 양가죽이 포근한 담요로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또 양떼가 속으로 덮힌 들판을 누비며 먹이를 찾는 곳. 길 잃은 양과 늑대의 횡포를 겁내는 양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그리하여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바위틈에 갇힌 새끼 양을 찾아 내고는 행복한 마음이 되어 「양은 천진한 녀석들!」이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보드라운 털을 뺨에 비비고 돌을 넣은 깡통을 흔들어 양
배를 물고 집으로 오는 곳.

또한 그곳은 푸르고 끝없이 넓은 하늘을 보며 아름다움
에 젖어 아름다움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의 소
리를 바위며, 사막의 모래 위에 그림으로 옮기면서 슬한 우
스운 생각과 유쾌한 마음이 되채, 그 꿈에 취해 장글 속에
서 자기를 잃는 것. 스스로가 인디안임을 발견하고, 이를
감사하며 세월이 결코 인디안의 모습을 바꾸지 못함을 깨
닫게 하는 곳.

토담집 그늘에 앉아 재빠른 솜씨로 담요를 짜는 어머니
를 바라보며, 거기서 동족을 느끼고, 흰 털실 가닥으로 탐
스런 머리 끝을 잡아 맨 머리와 여윈 갈색 뺨을 어루만지
고 싶은 향수를 느끼는 곳. 은반지의 꿈을 새기는 아버지
의 망치질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곳이기도 하며, 온갖 신
기한 약초가 자라고 선하게 살려고 선한 자취를 따라가는
곳.

나의 백성은 늙으면 어깨를 떨어뜨리고 청동색 얼굴에
주름이 늘고, 가늘어진 갈색 머리가 되어 오랜 옛날의 그
림자에 앉아 역사는 미래를 제지해 주건만, 다만 어제와
어제의 일을 들추면서, 이렇게 노인끼리 둘러 앉아 혈관
으로 지나가는 씨늘해진 자기 피를 잊은채 뜨거운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젊은이들에게 「옛날은 좋았어, 그러나 결코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라는 이야기를 들려 주지만, 노인
처럼 옛날에 묻혀 다만 어제만을 회상하면서 고달픈 어제
를 살 수는 없는 것.

우리의 세계란, 흰색 백성으로 이루어진 흰색 세상에
둘러 쌓여, 거기서 선한 것을 찾으려는 곳. 결국은 오늘의
세계가 인디안의 것이 아님을 알고 충격을 받고 눈물로
과거에서 벗어나 다난한 내일과 새로운 사건으로 발을 들
여 놓습니다. 결국 인디안은 백색인들이 마련해 둔 문을
통하여 붉은 벽돌의 학교엘 가고, 새로운 삶의 방편을 배
워 모두에게 허가된 안식의 처소를 건설하려 하지만, 노
인은 아직도 이런 새로움에 서툴기만 합니다. 그래도 백
색인 붉은 벽돌집 학교에서 당면한 문제와 사실의 지식을
얻었을 때, 깨달음의 가슴이 고동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지식을 가슴에 간직하고, 쇠막대를 움
켜잡은 백성을 발견하며, 저들을 위하여 마련된 열매도 발
견하며, 때가 이르렀음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바조 인디안의 세계요, 디베의 아들
의 세계며, 바로 나는 내 백성 전체의 부분도입니다. 이
그림은 내게 영속할 수 있는 꿈을 주었고, 그 꿈이 내 백
성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야겠다는 불타는 의욕을 불러 일
으켰습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모습을 심어주어
야겠다는,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겠다는 의지가 살
아 납니다.





삶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병으로 병원에서 고생하던 한 젊은 여인이 말하기를, 「이토록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죽어야만 하다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이 애기하는 상호 향상회의 수 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의 애착을 가진 우리들이 살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이 생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시간과 재주를 나누고, 같은 이상과 표준을 가진 사람들과 사귄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록 무도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최하며, 참석하는 시간에 이러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일년에 여러 차례 벌어집니다. 그곳에 참석하는 많은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은 특별한 파티 까운을 입습니다. 그들은 지금 캔디랜드로 꾸며지고 단장된 문화관에서 그와 같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천정은 빛나는 붉은빛 플라스틱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레몬 썸은 무용하는 사람들의 간식의 하나로 레몬즙을 뽑어 올립니다. 소망의 썸이라는 곳은 과자로 꼭 차 있습니다. 찬란하게 단장된 꽃과자는 싱싱한 꽃다발처럼 보이며,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에 그대로 활기를 불어 넣어 생동하게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향회의 젊은 남녀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상향회 젊은이들이 행복을 발견하는 또 다른 활동…… 이제 막 심판의 호각이 울었습니다. 관중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상향회 농구 토너먼트의 최종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활동이 이제 막 여기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약 한달 전에 시작된 이 활동은 4만여명이 참석하여 매주 자기의 지부와 와드의 명예를 걸고 격돌하여 예선을 치렀습니다. 이들 선수는 농구장의 이끝과 저끝을 무서운 속력으로 질주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공이 다른 편으로 넘어가 연착되기도 하며, 그 공이 둥근 쇠고리를 향해 던져져야 움직임이 끝납니다. 던져진 공이 용하게 쇠고리 안으로 들어가면 응원의 함성이 다시 터지고 자기팀을 성원하는, 승리를 재촉하는 함성이 울립니다.

이밖에도 상향회는 젊은이들에게 체육과 교양등을 가르쳐, 저들이 이러한 활동에서 행복을 찾고 필요한 체험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재능을 발전시키라. 재능 위에 재능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능은 사람의 수효만큼이나 많고 또 그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의 재능을 가졌고, 연극, 웅변, 무용, 독서, 재봉 등등의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갖던 각각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행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수효가 많던 적던 주 하나님에의 신앙과 예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향회는 말하자면 웅변자에게 기회를 주어 연습하게 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향회에서 훈련된 사람의 열변을 듣고 크게 감동한 사람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젊은이의 야망이 기적을 낳습니다. 훌륭한 지부 웅변 교사는 늘 가까운 위치에서 젊은이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며, 젊은이를 훈련시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줍니다.

음악에 관해서도 상향회는 젊은이의 노래가 전달되는 곳에서 영감적인 메시지를 아울러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조화는 노래하는 사람의 성대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건반을 두드리는 숙련된 손가락, 나팔을 부는 입술, 하아프를 뜯는 손에 비롯되며, 이로써 창조자의 음악이 합창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상향회의 젊은이 음악 축제에서 다루어 집니다. 아무리 작은 지부나 지역이라 할지라도 음악적 소질을 가진

사람이 몇몇은 있게 마련이며, 자기의 자질과 재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음악제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얻는 행복,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하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교성 25: 12)고 하셨습니다.

상향회가 준비하는 연극은 창조적인 작가나 배우들에게 흥미를 줍니다. 상향회 극작가는 그의 와드나 지부에서 발표할 수 있는 약 10분짜리 로드 쇼를 쓰거나, 상향회의 평가를 받고 출판할 수 있으며, 이막 혹은 삼막으로 된 각본을 위한 착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재능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상향회 연극 지도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청중을 위해서 그들이 연극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공연할 때, 그들은 꿈(기대) 이상으로 능력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여름동안 상향회는 쏘트레이크에 있는 신전 앞의 노천극장에서 한 시간에 걸친 음악극 「약속된 계곡」이란 것을 공연했습니다. 이 연극 공연은 1961~1962년에 모두 백만 이상의 관중들에게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또한 2년간을 여름에 쏘트레이크시를 방문한 30만의 방문객들에게도 보여졌습니다. 대부분 연극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향회에서 얻은 연극적 재능을 발휘하였을 뿐입니다.

청년들이 운동시합에 참여하는 것처럼, 젊은 여자들도 때로는 그저 재미로, 또 어떤 때는 메달이나 상패를 받기 위하여 운동시합에 참가도 합니다. 각종 구기 시합에서의 활발한 계획은 젊은이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하게 해 줍니다. 여자들을 위한 상향회 야영 생활은 아마도 전 세계를 통하여 비길데가 없을만큼 훌륭한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캠프에서 얻는 그 기쁨과 실외에서 얻는 부가적인 기술 습득의 잇점,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정당하게 대하는가를 배우기 위하여 야영 생활의 기회를 갖습니다.

한 스테이크의 상향회 소녀들은 모두 야생 그대로의 야영지를 사들이기에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닦고, 빵이나 과자도 굽고, 어린애도 봐주며, 헐리는 건물의 벽돌을 정리하고, 여러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구운 닭고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삼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소유인 야영지에 가서 야영을 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년 상향회 캠프를 열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향회는 순간과 영원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의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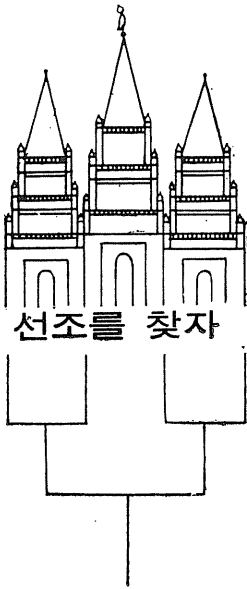
1969년도 상호 향사회 주제 봉독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교리와 성약 130편 18절)

누가

나의

친척인가?



위의 제목이 던지는 질문은, 수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저들의 이웃과 친족이 누구일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했고, 그 정의를 스스로 내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번 달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살펴 본 후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살아계신 친척을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야 하되,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선포된 파멸을 입기 전에 인도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0 페이지)

이상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혈연관계로 우리의 친척인 자와 주의 신전에서 거룩한 신권의 힘으로써 함께 결봉된 자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혈통의 도표나 가족 기록서의 사용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이상의 두 개의 가족 기록서를 편집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몇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 완성을 위한 과정에서 어떠한 기록이 정리되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기록을 정확하게 편집해야 하며, 우리 자신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가능한 한 부친의 혈통과 모친의 혈통을 따라가면서 기록하여 혈통의 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혈통의 도표 위에 나타난 조부모와 그 자녀들의 상항을 기록한 가족 기록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나 자매들의 것을 총망라한 부모님에 관한 기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가족 기록서를 넓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완성하려면 첫째,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재 살아있는 친척들의 이름을 그들의 주소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척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기록할 수 없을 때라도 놀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정확하게 기록하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친척은 교회 회원이 아니므로 족보기록 완성에 흥미도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자료를 완성함에 있어 하등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많은 가족의 경우에서 옳지 않다고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참된 가정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친척들이나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친척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편집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개인적인 자료가 이미 그 가족 가운데서 편집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절약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한 개별적인 방문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을 개별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잇점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은 조상에 대하여 못 들었을 수도 있는 전설과 옛 이야기의 단편적인 것들을 규합 함으로써 풍부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두고 기억하도록 방문에 관한 기록을 면밀히 해 두면 각 친척은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 무엇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뒷걸음질치지 않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각 친척집들을 방문한 후에 짧막하게 감사하다는 내용을 써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감사함을 말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준 도움에 사의를 표하라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친척은 교회 회원이 아니므로 우리와 같은 이유로 그 연구 조사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비회원인 친척에게 편지를 쓸 때는 족보사업과 신전에서 의 일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한 족보의 가치를 강조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신전사업을 위한 도구로서 단지 그 조사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술한 두가지 사실

은 내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족보사업 연구와 그 결과는 복음의 근본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그 연구는 중요한 복음의 의식이 죽은 우리 혈연의 승영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신전에서 대신 기록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족보의 자료를 얻겠다는 여러분의 욕망을 현명하게 처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친척들이 교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친척과 접촉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신문도 세계 여러 곳에서 큰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척이 몇대 동안에 걸쳐 살았던 때나, 특별한 장소를 알면, 여러분은 그 지방의 신문에다 여러분이 서신으로 연락하고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묻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십시오. 이 방법은, 가족의 다른 파가 있던 것을 전혀 몰랐던 같은 가족의 식구들을 함께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족보연구의 가장 간단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가족 단위에는 많은 전설과 실화, 낡은 문서, 신문에서 오려낸 종이, 기념물들이 있어 흔히 가족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남이 없이 완성된 가족의 혈통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른 가족들과 접촉함으로써 같은 사업을 되풀이 하는, 일의 중복과 경비의 낭용을 피하게 됩니다.

계보 위원회가 기록 확인서를 받고 그 몇일 후 가족의 다른 식구로부터 동일한 기록을 받는 예는 허다합니다. 개개인은 자기의 가족의 기록을 작성하기 전에 가족과 낯날이 접촉하지 않음으로 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식구들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계보협회의 봉사계획에 의존하는 일입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보 위원회에 의하여 제공된 질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누가 여러분 가족의 혈통을 조사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자료가 여러분이 볼 어은 바로 그 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므로 최소한 매 6개월마다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문벌의 다른 식구가 이러한 일로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전 세계의 여러곳으로부터 가족 식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제시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보협회 봉사계획의 기록과 질문 양식은 소책자의 설명을 읽던가 각 지역 신권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은 흰 데

(아취 부로거 선교부장 제 2 보좌)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받은 이미 회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귀의시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근 벼밭이 낫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읍니다. 아마도 이런 뜻에 좇아 선교사를 위한 잡지를 「흰 밭」이라 이름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어느나라 보다도 한국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리와 성약 제12편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 보겠읍니다.

「보라, 받은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추수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낫질하게 하며, 날이 다 가기 전에 거두어 자기의 영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구원을 쌓아 두게 하라.

참으로 낫질하여 거둘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보라, 네가 간구한 대로 내 계명을 지켜 시온의 대업을 이르켜 세우기를 힘쓰라.

보라, 내가 너와 이 사업을 이르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자비의 덕을 지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떠한 일이나 모두 삼가 조심히 행하는 자 아니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이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자께」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한국 땅에 아니 전 세계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수확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종교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하신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최상의 방법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라는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업적에 깊이 감사하는 태도가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 그치지 말고, 적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폭넓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그것은 좋게든 나쁘게든 가장 훌륭한 교훈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은 보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미국인 교사는 수업 도중 기독교에 관한 말은 일체 금하여 달라는 경고를 받았읍니다. 그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읍니다. 그는 결코 입밖으로 내지는 않았으나 기독교를 생활하고 있었읍니다. 성격이 원만하고 나무랄데 없는 생활 태도에 감동한 나머지 40여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선생이 속한 종교로 개종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추수에 임하는 농부는 우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곡간을 치워야 하며, 낫도 갈아야 합니다. 타작 마당도 보아두어야 합니다.

흰 밭에서의 추수에도 역시 준비는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이나 생각을 버리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등 마음의 곡간을 말끔하게 치워야 합니다. 좋지 않은 개성은 바꾸어야 하며, 복음 안에서 사랑과 이해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날카롭게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이해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몬임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로는 수확의 대열에 걸 수 없습니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교사가 자기 밭의 성질이 산성임을 알고 석회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비웃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친구도 많았읍니다. 조그마한 들 옆 샘에서 열심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읍니다. 밭에 보리를 심고 회를 뿌리는 손을 쉬지 않았읍니다. 보리는 자라 검푸른 색이 돌 정도였읍니다. 물론 수확량도 많았읍니다. 봄, 여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은 「석회뿌린 밭」이라는 표지를 읽을 수 있었읍니다.

한국의 흰 밭에서 추수를 하려는 사람은 위의 경우에서와 같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신권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풍요한 수확의 대열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참다운 희열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리차드 엘. 이반스

우리들에게 법이없다면

진리의말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계명이라던가, 표준 율법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감사해야 할 것은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세상에 표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교수, 학원 선생이 우리들에게 졸업 자격이라던가, 면허 소지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언제 끝낼 수 있는지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하는대로 내버려 두어서 정직해도 그만,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으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명이라던가 생활표준, 율법, 생의 목적, 필요한 지식등을 주시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이 참으로 초라하고 음산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법입니다. 법이 없이는 소유권이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고, 문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법이란 쉽게 어겨지고 남용되기 쉬운 반면에,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를 함께 단합시키고,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며, 소유권을 밝히고, 개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건잡을 수 없는 광란과 횡포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던져 버리거나 계명에 불복하기 전에, 도덕적인 순결을 어기기 전에, 관습을 파괴하기 전에,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전에, 부모나 선생이나 그밖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잠깐 멈추어 서서 법이 없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며, 배우거나 생산해 내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임무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타이르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행동의 표준을 일깨워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과, 계명과, 혼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법이나, 계명이나, 표준규율 등이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폐허 속으로 말려 들어가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중앙 방송국 제 2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미군방송)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